디지털 시대, '법재'가 진짜 자산

〈法財〉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지난 4월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무려 2300만 명의 휴대폰 인증 정보로, 사실상 국민 절반 가까이의 실명 기반 디지털 신원이 노출된 셈이다.

휴대폰 인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곧 개인의 삶을 입증하는 '디지털 주민등록증'이며, '전자 도장'이기도 하다. 그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디지털 사회가 지닌 불안정성과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지 기업 보안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나의 것'이라 믿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재물과 명예, 권한과 정보는 평소엔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는 다음과 같이 법문한 바 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연이 다해 떠날 때는 나를 괴롭히지만, 법재(法財)는 영원불멸하여 조상에게는 복과를 주고 자손에게는 밑거름이 된다." 〈실행론〉4-6-11(가)

이 말은 재산의 무상함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물질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책임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정보 자산 또한 그러한 무상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해커 한

정보 유출, 디지털 사회 불안정성 드러내
정신적 자산 법재는 해커도 훔칠 수 없어
불자는 참된 내 것 알고 간직하며 살아가

명이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반면, 해커도 훔칠 수 없고 죽음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법재'이다. 법재는 불법(佛法)을 배우고, 닦고, 실천하면서 쌓아가는 정신적 자산이다. 이 자산은 은행에 예치되지 않지만, 업(業)의 통장에는 분명히 기록된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복덕이 되어 자신과 자손에게 선연을 만든다. 법재는 해킹될 위험도 없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죽음 이후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다음 생에서도 자비의 인연을 이끌어 주는 씨앗이 된다.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고, 대부분의 삶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의 허상을 다시 묻고 있다. 진짜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언제든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무엇이 진짜 내 것인가'를 다시 묻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진각성존의 말씀대로, 재물은 인연이 다하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법재는 인연이 다해도 나를 살린다. 해커도 훔칠 수 없고, AI도 복제할 수 없으며,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법재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불자란 세상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더라도 잃지 않는 '참된 나의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심(安心)과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수행이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혁신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낯섦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낳는다. 그것이 개인을 넘어 조직의 차원에 이를 때, 변화는 늘 긴장과 저항을 동반한다.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흐르는 '의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재편되는 시대에서 혁신을 거부하는 조직은 곧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리더십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은 대개 리더의 몫이다. 리더가 앞서 걸으며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며 저항을 껴안고 내부의 혼란을 통합할 수 있어야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특히 오늘날처럼 디지털 전환과 세대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지시나 통제 방식의 리더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혁신은 언제나 낡은 관성을 부수는 일과 마주친다. 이때 리더는 충돌을 두려워하기보다, 충돌을 진단의 신호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반발은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구성원의 말 뒤에 숨은 맥락을 읽고, 변화의 필요를 감정이 아닌 의미로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조직심리학자들은 이런 과

변화 첫걸음 내딛는 일은 리더의 몫
조직 유기체 작동하게 숨 불어넣어야
흐름 조율하는 겸손·단단 리더십 필요

정을 '변화의 단계별 수용'이라고 부른다. 처음엔 충격과 저항, 이어지는 혼란과 회의,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과 내면화이다. 리더는 이 전 과정을 통과하며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혁신은 불교 수행과 비슷하다. 만물만생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고 화하여 돌아간다. 혁신이란 고인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며, 스스로에게 익숙해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것은 늘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이 움튼다. 혁신은 기존 구조의 균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를 실험할 수 있는 전환기적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러섬 없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축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겸허함, 익숙한 방식에 매달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력. 이런 내면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조직을 이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정진이라 부른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행위로서 혁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진이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조직의 리더란 단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혁신의 리더는 앞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흐름을 조율하는 존재다. 이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社 說

조계종 총무원 정상화 마음 모으자

급박했던 95분이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천장에서 화재가 확인된 6월 10일 10시 22분부터 화재 진압이 완료된 11시 57분까지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사부대중은 침착하고 발 빠른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무엇보다 어떠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는 평소 매뉴얼에 따른 꾸준하고 철저한 소방 훈련이 있기에 가능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총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고 한다.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박물관 기획전 성보 이운도 차질 없이 진행된 것도 모두 평소 화재 대응 준비가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마를 털어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 역시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통합 안내 전화를 운영하는 등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화재는 저의 부덕"이라며 종도들에게 머리 숙여 참회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지만, 총무원장이 책임을 표한 것이다. 종무행정이 정상화되는 것은 총무원의 몫만이 아니다. 종도 모두가 협조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조계종 첫 비구니 법계위원, 참종권 첫발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최초로 상정되는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건은 매우 뜻깊은 안건"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명사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했다.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는 최근 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심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호계위원회와 법계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비구니 스님들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단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이 18대 중앙종회에서 실현된 만큼,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